

# 부모-아동간 신념의 일치도와 아동의 자기능력 지각과의 관계 연구\*

## Congruence of Parent and Child Beliefs: Relationships to Perceived Competence

전 경 숙\*\*  
Jeun, Kyeung Sook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relations between the congruence of parent-child beliefs and child's perceived competence. The subjects were 138 children (68 eight-year-olds and 70 eleven-year-olds) and their parents. Instruments were the modified Family Belief Interview Schedule (Alessandri & Wozniak, 1987), and Harter's Perceived Competence Scale. Data were analyzed by Pearson's product moment correlation and two-way ANOVA.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in child's perceived cognitive competence, social competence and physical competence by degree of congruence between child's belief and maternal belief. Younger children showed a higher level of general self-worth perception while older children showed a lower level. Children who showed a high congruence of beliefs with parents perceived their competence more highly than those with low congruence. This tendency was particularly outstanding in the perception of cognitive competence, implying a positive impact of the congruence of parent-child beliefs on children's perceived cognitive competence.

### Ⅰ. 서 론

#### 1. 문제제기 및 연구의 필요성

근간의 몇년동안 부모가 자녀를 어떻게 생각하며, 이러한 신념이 자녀발달에 어떻게 영향을 줄

것인지에 대해 심오한 관심이 야기되어 왔고 이에 관한 연구나 문헌이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Sigel, 1985, 1992; McGillicuddy-De Lisi, 1985; Miller, 1986).

1970년대말-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부모-자녀 관계 연구에 있어서 지대한 영향을 가져온 중

\* 본 논문은 1994년도 동아대학교 학술연구조성비의 지원을 받아 수행되었음

\*\* 동아대학교 생활과학대학 교수

요한 추이의 하나가 이들 상호작용에 있어 인지에 대한 강조로 최근 10년 동안 인지에 대한 관심의 증대와 함께 부모-자녀 관계 연구에 사회심리학이나 발달심리학에서 나온 개념모델을 사용하여 보다 폭 넓은 시각으로 다양한 인지적 접근을 하고 있다. 그리하여 부모-자녀간의 상호작용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요인을 새로이 인식하게 되었고, 그 결과 이러한 여러요인의 역동적인 영향을 지각하고 조절하고 통합하는 부모의 내적인 인지과정을 부모행동의 근원으로 강조하게 되었다. 개인은 다른 사람들과 어떻게 상호작용을 하며, 다른 사람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다른 사람의 행동에 대해 어떤 형태를 갖는가가 다양한 귀인(attribution)과 schemas에 의해 중요하게 영향을 주고 받는다는 것이다.

부모는 신념(beliefs), 가치(values)등을 가지고 자녀에게 동기부여자(motivators), 조직자(organizers) 그리고 아이들 행동에 대한 안내자로서의 역할을 하게 된다. Sigel(1985)은 부모-자녀 관계에서 부모의 행동을 이끄는 주된 요인으로 부모의 욕구, 가치, 신념등을 들고 있다.

부모들은 아이가 어떻게 발달하는가에 대해 복잡한 신념을 갖는것 같으며 부모의 신념은 구체적인 행동으로 나타내지 않더라도 자녀에게 전달될 수 있으며, 또한 부모의 신념은 복잡한 구조 가운데 자녀와의 상호작용을 거쳐 늘 표현되어진다고 본다. 즉 부모가 자녀를 어떻게 다루느냐는 부모가 자녀에 대해 신념을 어떻게 갖느냐에 의해 부분적으로 결정된다고 본다.

부모의 신념은 추상적 개념체계이기에 아동발달간의 상호작용은 복잡해지게 된다. 부모는 사회의 지배적인 생각이나 지식, 정보에 근거하여 자녀의 발달을 파악하게 된다. 자녀발달에 관한 지식이나 정보들은 자녀와의 직접적인 경험을 통하는 동안 수정되고 변화되거나 확신됨으로써 일련

의 구조화된 신념체계를 형성하게 된다.

이와 같이 아동발달에 관련하여 부모의 신념이 강조되는 이유는 부모행동의 근원으로서 양육행동에 영향을 주어 발달에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즉 부모의 자녀발달에 대한 신념은 부모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이러한 행동은 자녀의 발달과 직접적으로 연관되므로 결과적으로 부모의 신념이 자녀의 발달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잠재적인 근원 내지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최근의 몇 연구들은 부모의 신념과 부모의 행동이 어떠한 관련성을 보이며, 부모의 신념이 아동발달에는 어떻게 어느정도 영향을 미치며, 부모의 신념과 부모의 행동 그리고 아동발달과는 서로 어떠한 관계를 보이는 지를 비교 분석해 보기 위하여 부모의 신념, 부모의 행동, 아동발달의 가정적 모형을 설정하여 이를 검증하고 있다.

본 연구자는 Sigel(1985)이 제안한 부모-아동 관계 연구에서의 신념-행동 패러다임에 근거한 부모-아동간의 신념 및 신념들의 일치도가 자녀의 인지적, 정의적행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인지를 실증적으로 확인하여 보기위해 연구를 시도한바 있었다(1992).

그 결과 부, 모, 아동의 신념문제는 아동의 인지적 행동보다 정의적 행동과 더 큰 관계를 갖고 있었으며, 부모-아동간 신념의 일치도가 아동의 정의적 행동을 나타내는 자기자신의 능력을 지각하는 정도와 의미있는 관련을 맺으며 유의함을 보였다.

이 연구의 수행을 통해 아동의 정의적 행동인 자기능력 지각연구에 대해 미흡함을 느꼈고 보다 자세한 연구의 필요성이 요구되었다. 즉 의미있는 하위변인과의 관계를 보다 더 면밀하게 탐색해 볼 필요성이 요구되었다.

본 논문의 이론적 배경에서 제시되는 바와 같이 부모-아동간의 의견의 일치도, 부모의 양육태

도, 부모의 포부수준, 자녀의 연령등의 변인들이 아동의 정의적 행동영역인 자녀의 자기능력 지각이나 자아개념에 중요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대다수의 연구들이 부모의 양육태도, 부모의 아동에 대한 기대수준 또는 부모간의 양육태도간의 일관성 등에 초점을 맞추어 아동의 자아개념과 같은 자아의식 형성에 관해 연구하여왔다. 그러나 부모들의 신념체계 또는 부모-아동간의 신념들간의 일치도를 주요 변인으로 하여 자녀의 자아개념, 자기존중감, 자기능력 지각 등에 관한 연구는 제대로 이루어져 있지 못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부, 모, 아동의 신념과 부모-아동간 신념의 일치도 여부가 아동의 자기능력지각에 어떠한 영향을 주고 있는지 확인하고자 한다. 본 연구를 통한 확인은 부모-아동관계 연구에서 아동의 자기능력지각 및 자아개념 형성에 중요한 인과적 변인으로서 부, 모, 아동 신념의 중요성 또는 부모-아동간 신념일치도의 중요성을 강조하게 하는 근거가 될 것이라고 믿는다.

부모가 자녀를 기르고 가르치는데에 부모의 개인적, 심리적 특성, 생각이 가미되어 간직하고 있는 사상을 자녀양육 및 교육에 관한 신념 및 가치관이라고 할때, 자녀를 어떤 사람으로 키우고 싶은지, 어떤 형의 사람으로 키우고 싶은지에 대한 이러한 신념들은 생활에서 자녀를 대하는 구체적 행동 양식으로 표현되어 자녀의 발달에 영향을 주게 될 것이다. 부모가 지닌 신념에 따라 자녀에게 기대하는 바가 달라지며 그 결과 아동의 발달이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연구자는 부모-아동간 신념 및 신념들의 일치도가 자녀의 정의적행동인 아동의 자기능력 지각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심층적으로 알아보기 위하여 본 추후 연구를 시도하였다.

## 2. 연구 문제

본 연구에서 규명될 연구문제는 크게 두가지 영역으로 나누어지는데, 그 하나는 아버지, 어머니, 아동의 신념과 아동의 정의적행동인 자기능력 지각과의 관계에 관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부모-아동간의 신념 일치도와 아동의 정의적행동인 자기능력 지각과의 관계에 관한 것이다. 본 연구의 구체적 문제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부, 모, 아동의 신념과 아동의 자기능력 지각간에는 관계가 있는가?

1-1. 부, 모, 아동의 신념이 높고 낮음은 아동의 연령에 따라 아동의 자기능력 지각 하위변인들에서 차이가 있는가?

1-2. 부, 모, 아동의 신념은 아동의 연령에 따라 아동의 자기능력 지각의 하위변인과 관계가 있는가?

연구문제 2. 부모-아동간의 신념일치도와 아동의 자기능력 지각간에는 관계가 있는가?

2-1. 부모-아동간의 신념일치도가 높고 낮음은 아동의 연령에 따라 아동의 자기능력 지각의 하위변인들에서 차이가 있는가?

2-2. 부모-아동간의 신념일치도 유형은 아동의 연령에 따라 아동의 자기능력 지각의 하위변인과 관계가 있는가?

## 3. 용어의 정의

본 연구에서 채택된 주요 연구변인에 해당하는 다음의 용어들을 선행연구의 고찰에 따라 연구자가 조작적으로 정의하였다.

### 1) 신념

신념은 상당히 넓고 포괄적이어서 schemas, attribution, ideas, judgements, conceptions, cognition 등으로 문헌에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는데(Sigel, 1985), 신념의 정의나 개념화의 불일

치한 견해에도 불구하고 신념은 행동을 이끄는 중요한 심리적 가이드를 형성한다는 의견에는 일치하고 있다. 신념의 정의에 대해 여러 근원을 고찰해 본 결과, 사람이나 사물에서의 믿음이나 신뢰상태의 정신적 활동, 어떤 것의 믿음이나 정확성에서의 정신적 수락 또는 확신으로 정리되고 있으며, 사회심리학의 관점에서 Quattrone (1985)은 신념을 “인지적 내적 상태(cognitive internal states)”라고 하여 내적 상태는 attitude, belief, attribution, inference를 포함한다고 하였다. 신념에 대해 특히 Sigel(1985)은 체계적인 가치관이나 사실의 구성체로 보아 belief, belief systems이라는 용어를 제안하였는데 이는 최근 부모-자녀의 관계 연구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상과 같은 고찰을 통하여 신념을, 행동에 영향을 미치고, 행동을 이끄는 중요한 근원으로서 사람이나 사물에 대한 믿음이나 확신, 신뢰의 정신적 구조를 뜻하는 것으로 정의한다. 본 연구에서의 신념은 Alessandri와 Wozniak(1987a)이 제작한 FBIS(Family Belief Interview Schedule)척도를 우리나라의 상황과 실정에 맞도록 연구자에 의해 번역, 수정한 가족신념면접 척도를 통해 나타난 부, 모, 아동, 아동예측 아버지, 아동예측 어머니 신념 점수를 말한다. 따라서, 본 연구의 신념에는 다섯 가지 종류가 있는데, 부, 모, 아동 각각이 FBIS 척도를 통해 지각한 아버지 신념, 어머니 신념, 아동의 신념과, FBIS 척도의 상황에 아버지 및 어머니가 어떻게 지각할 것으로 아동이 예측한 아동예측 아버지 신념과 아동예측 어머니 신념이 있다.

## 2) 신념일치도 유형

가족신념면접 척도에 의해 얻어진 다섯가지의 신념점수(아버지 신념, 어머니 신념, 아동 신념,

아동예측 아버지 신념, 아동예측 어머니 신념)들 간의 일치도에 따라 Cashmore & Goodnow (1985)와 Alessandri & Wozniak (1987a)의 세 가지 신념 일치도 유형에 따른 8가지 신념 일치도를 일컫는다.

가. 기본적인 일치도(basic agreement)

첫째, 어머니의 신념과 아버지의 신념간의 일치도(Parental Agreement:PA)

둘째, 어머니의 신념과 아동자신의 신념간의 일치도(Mother Congruence:MC)

셋째, 아버지의 신념과 아동자신의 신념간의 일치도(Father Congruence:FC)

나. 예측의 정확성(accuracy of prediction)

네째, 어머니의 신념과 아동이 예측한 어머니의 신념간의 일치도(Child's Accuracy-Mother:CAM)

다섯째, 아버지의 신념과 아동이 예측한 아버지의 신념간의 일치도(Child's Accuracy-Father:CAF)

다. 유사성 추측(assumed similarity)

여섯째, 아동자신의 신념과 아동이 예측한 어머니의 신념간의 일치도(Child's Assumed Similarity-Mother:CASM)

일곱째, 아동자신의 신념과 아동이 예측한 아버지의 신념간의 일치도(Child's Assumed Similarity-Father:CASF)

여덟째, 아동이 예측한 어머니의 신념과 아동이 예측한 아버지의 신념간의 일치도(Child's Assumed Parental Consistency:CAPC)

## 3) 자기능력지각(perceived competence)

자기능력지각이란 일종의 자기가치(self-worth) 또는 자아개념(self-concept)의 형태로서 특히 국민학교 아동의 학교생활에 있어서 인지적, 사회적, 신체적, 제반 기능에 대한 자기확신(self-

confidence)의 지각을 말한다. 본 연구에서는 Harter(1982)의 자기능력 지각 검사 도구의 하위 영역인 인지적 능력, 사회적 능력, 신체적 능력, 그리고 일반적 자아가치의 지각점수를 아동의 자기능력 지각으로 간주 하였다.

## II. 이론적 배경

### 신념 및 신념의 일치도와 아동의 자기능력 지각과의 관계

초기의 학자들은 부모-아동 관계가 아동의 자기확신이나 자기능력에 대한 긍정적 평가에 큰 영향을 준다고 보았다(Erikson, 1963). Kohn(1969)은 부와 모의 신념이나 가치가 상이하면 아동의 자아정체감 형성이나 자아의식 형성에 다르게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하였다. 그리고 김재은(1974)은 가정의 문화적 풍토, 부모의 양육태도, 가치관, 기대수준 등이 아동의 자아개념 형성에 영향을 준다고 하였고, 김기정(1984)도 부모 및 교사와의 상호작용이 자녀의 자아개념에 영향을 준다고 하였다. 즉 부모와 교사의 상호작용은 부모가 자녀에 대해 갖고 있는 잘못된 신념을 교정할 수 있고 이렇게 교정된 신념은 자녀의 자아의식을 수용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기초가 된다고 하겠다.

Rosenberg(1963)는 “부모의 관심과 아동의 자기능력(Parent interest and children's self-competence)”이라는 논문을 통해 부모의 관심 자체가 -그 관심의 질이 어떠한 형태이든간에- 무관심한 태도보다는 자녀의 자기존중감을 높여 준다고 하였다. 또한, 김경옥(1977)은 가족끼리의 관계가 원만하고 가족원들이 서로 애정과 신뢰로서 협동하며 애정이 조건없이 자유롭게 표현되도록 허용하는 가정환경 속에서 사는 학생들의

자아 수용도가 높다고 하였는데 이것은 개인이 성장하면서 경험하는 애정과 긍정적 존경에 의해서 자아 수용이 형성된다는 Rogers의 이론을 지지하는 것이다.

이종승과 오성심(1982)은 아동이 부모행동을 긍정적으로 지각할 때 아동의 자아개념은 높게 나타난다는 점을 실증적 연구로 확인하였다. 즉, 아동은 타인에 의해 인정을 받게 되면 적응을 잘 하며 자신의 판단대로 확신을 세우며 새로운 표현을 하게 된다. 반면에 아동이 부모 행동을 부정적으로 지각하면 아동의 자아개념은 낮게 나타난다. 이때 아동은 자신을 낮게 평가하고 이러한 생각에 일치된 행동을 함으로써 성취영역의 하나인 학업활동에 부진을 초래한다고 할 수 있다.

Parsons, Adler, 그리고 Kaczala(1982)들은 아동의 학문적 태도와 부모의 영향에 관해 5-11학년 아동과 그들의 부모를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얻어진 결과는 부모간에, 아동의 성에 따라 아동의 수학적 성취에 대한 기대가 차이가 있음이 나타났다. 즉 딸을 가진 부모는 아들을 가진 부모보다 수학에서 더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각하는 반면에 아들을 가진 부모는 딸을 가진 부모보다 아들의 수학적 성취를 실제의 수학점수보다 더 좋게 지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아동의 성별에 따라 아동의 능력을 지각하는데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고 이러한 차이는 곧바로 아동의 자기능력 지각에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Stipek와 Iver(1989)는 아동의 자기능력 지각 평가에 관한 발달적 변화라는 연구를 통해 아동은 자기능력을 평가하는 수준이 어릴수록 높게 평가하는 경향이 있고, 나이가 증가할 수록 특히, 6-7학년에서 부터 현저하게 낮게 평가하는 경향이 있다고 하였다. 그런데 자기능력 평가척도로서 Harter(1982)의 자기능력지각 척도(Perceived

Competance Scale)를 사용하여 조사한 결과, 국민학교 저학년과 국민학교 고학년간에 자기능력을 거의 비슷하게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아동이 연령증가에 따라 자기능력을 낮게 지각하는 경향이 보편적인데, Harter(1982)의 척도에서 변화가 보이지 않은 이유는, Harter 척도는 다른 척도들이 주로 일반적이고 평이한 상황에 대한 아동의 자기능력 평가를 조사한다면, 이 척도는 보다 구체적이고 세밀한 아동의 기능에 대한 자기능력 지각을 조사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겠다.

한편 Nicholls(1978)등은 국민학교 2-3학년 이전단계에 아동이 자기능력을 평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고 지적하였다. 왜냐하면, 어린 아동들은 자기능력 평가시에 주어진 수행과제의 난이도를 바르게 인식함 없이 노력하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지각하게 되어 실제의 자기능력보다 과대하게 자기능력을 평가하기 때문이라고 보았다. 본 연구에서 Harter의 자기능력 지각 척도를 2학년 이후부터 적용한 이유도 바로 이 연구 자료에 기인하고 있음을 밝혀둔다.

다른 한편, 부모의 양육행동과 자아개념과의 관계에 대해 Taub(1974)와 Tower(1981)등은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아버지가 거부적, 통제적 일때 자녀는 열등의식에 쌓이고 소극적이 되며 사회적 부적응을 일으키게 되고 아버지가 애정적 자율적일때 자녀는 정서적으로 성숙하고 긍정적 자아개념을 발달시켜, 아버지의 양육태도가 바람직하면 자녀는 내적으로 지각할 것이라는 추론을 할 수 있으며, 어머니와 마찬가지로 아버지도 자녀의 학업 성취와 귀인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변인임을 시사받을 수 있다. Graybill(1978)은 자율적 양육 행동과 통제적 양육행동이 일치할 수록 자녀의 자존감은 높아지며, 특수한 상황에서의 규율에 다소 융통성을 허용하면서 부모간의 양육

행동이 일치한다고 자녀에게 인지될 때, 자녀의 자존감은 높아진다고 하였다.

장도현(1984)은 부모간의 양육 행동이 일치할 수록 자녀의 일반적 자아와 가정에 대한 자아가 높아지며 부모간의 통제적 양육 행동이 일치할 수록 자녀의 가정에 대한 자아가 높아진다고 보았다. 그리고 부가 모보다 자율적 일 때 자녀의 사회적 자아가 높아지며 부가 모보다 적대적일수록 자녀의 학교에 대한 자아가 낮아지는 점으로 보아 아버지의 권위가 아직도 자녀에게 크게 인지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부모간의 양육행동의 불일치가 아동의 행동에 정당한 관계를 설정해 주지 못하여 갈등을 일으키게 되고 낮은 자존감을 형성시킨다고 하였다. 그리고 부모의 신념, 가치관, 부모의 양육 태도 외에 자녀의 자기능력 지각과 관계있는 변인들로는 아동의 연령, 부모의 성별, 아동의 성취행동들을 수 있겠다.

김은아(1981)는 그의 연구에서 아버지는 자녀의 지각의 장애 있어서 어머니보다 더 지배적이고 처벌적이라고 인식되고 있음을 밝혔다. 그리고 자녀가 아버지를 긍정적으로 지각할 때는 인성면에 있어 독립심이 강하고, 좌절감을 극복하고 안정성 자신감이 강하며, 정서적인 성숙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사회성에 있어서 동료간에 원만한 인간관계를 갖고 신체적 능력과 지적능력에 있어서도 다른 아동보다 우수하다고 하였다. 반면, 자녀가 아버지를 긍정적으로 지각하지 못할 경우 또는 그릇된 모델로 지각할 경우 자녀들의 비행을 야기시키기 쉬우며 아버지에 대한 지각의 장애는 자녀들의 행동차원에서 어머니에 대한 지각의 장애보다 더 우세하다는 결론을 내리고있다.

Deitz(1969)는 비행을 저지르는 아이들은 자신들이 생각하는 자아와 부모가 생각하고 있는 자아사이에 유사성이 거의없다고 가정하였다. 이

가정을 증명하기위해 그는 14-18세에 걸쳐 40명의 비행 청소년과 42명의 정상적인 청소년의 부모관심 자기수용, 자아개념을 비교해 보았다. 그 결과 비행 청소년은 정상적 청소년보다 그들의 부모에 의해 덜 긍정적으로 지각된다고 믿고 있었다. 그리고 같은 자아개념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을 비교해 본 결과 정상적인 청소년들이 비행 청소년들보다 부모관심 자기수용, 자아개념 등에서 높은 점수를 보이고 있었으며 또한 이들은 부모들이 자기 자신들의 능력을 인정해 준다고 생각하고 있음을 밝혔다.

Brookover, Erikson, 그리고 Joiner(1967)의 7-12학년 까지의 학생을 대상으로 그들의 학업 능력에 대한 부모 교사 친구의 평가가 이들 학생의 학문적 자아개념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7, 8, 9, 10학년에서는 부모의 평가가 친구의 평가보다 학문적 자아개념 변화에 더 큰 영향을 미치고, 12학년은 부모보다 친구의 평가가 학문적 자아개념과 더 높은 관련을 보임으로서 학년 수준이 높아갈수록 자아개념의 변화에 미치는 친구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커짐을 말해 주고 있다. 또한 교사의 평가보다도 부모의 평가가 학문적 자아개념과 더 높게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도 밝혔다. 박희라(1989)는 남아의 경우 부모로부터 인정을 많이 받는다고 지각할수록, 여자친구로부터 인정을 많이 받는다고 지각할수록 전체적인 자아존중감이 높다고 하였고, 여아의 경우는 부모만이 자아존중감과 관계가 있었다고 연구에서 밝히고 있다. 그리고 남자는 부모와 동성친구가 인정을 많이 한다고 지각할수록, 여자는 부모가 자신을 더 많이 인정한다고 지각할수록 자기가정에 대한 긍지와 긍정적인 자아개념을 가진다고 보고하고 있다.

이상의 선행연구를 볼 때, 부모의 신념, 부모-아동간의 신념과 그 일치도는 부모의 양육행동

및 아동의 정의적행동에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 Ⅲ. 연구방법

####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부산 시내에 위치한 양쪽 부모가 모두 생존해 있는 2개 국민학교의 4개반 2학년과 5학년의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아동들이다. 이들중 부모용과 아동용 가족신념면접 검사를 모두 받고 응답이 누락되었거나 중복되지 않은 가정만을 최종 연구대상으로 확정하였으므로 본 연구의 최종 대상자는 138 가정의 아버지, 어머니, 아동으로 총 414명이었다. 이는 원래조사 실시자의 89%에 해당한다. 연구대상아동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 <표 1>과 같다.(아버지, 어머니 생략)

본 연구의 대상을 국민학교 2학년 자녀를 둔 가정과 국민학교 5학년 자녀를 둔 가정으로 선택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의 특성상 자기 중심적인 사고과정에서 탈중심적인 사고가 가능한 구체적 조작기 시기에 해당하는 연구대상을 선정해야 아버지, 어머니의 신념을 예측할 수 있는 객관적 판단력이 요구되었기 때문이고 둘째, 선행연구에 의하면(Nicholls, 1978) 국민학교 2학년 이전 시기에는 아동은 자기능력을 과대지각한다는 지적에 따라 2학년 이상의 아동을 선정하였으며 셋째, Piaget의 인지단계에 의하면 구체적 조작기의 출발단계에 있는 국민학교 2학년의 아동과 후기 발달단계에 있는 국민학교 5학년의 행동특성간의 지각 경향성을 알아보는 것이 의의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표 1〉 연구대상 아동의 일반적 특성

특 성		연 령	전 체		
			8세 N	11세 N	N %
성 별	남 아	29	34	63	45.7
	여 아	39	36	75	54.3
	합 계	68	70	138	100.0
형 제 수	1 명(외동아)	3	3	6	4.3
	2 명	45	45	90	65.2
	3 명	17	17	34	24.6
	4 명	2	4	6	4.3
	5 명 이상	1	1	2	1.4
	합 계	68	70	138	100.0
출생순위	첫 째(말이)	38	36	74	53.6
	중 간	8	12	20	14.5
	막 내	19	20	39	28.3
	독자·무남독녀	3	2	5	3.6
	합 계	68	70	138	100.0

2. 측정도구

본 연구에서 채택한 주요 측정도구는 다음과 같다.

1) 신념 측정 도구

본 연구에서는 자녀에 대한 가족간의 신념을 측정하기 위하여 Alessandri와 Wozniak(1987a)이 개발해 사용한 바 있는 가족신념면접 척도(Family Belif Interview Schedule)를 본 연구자가 우리나라의 상황과 실정에 적합하도록 번안·수정·보완하여 제작하였다.

가족신념면접 척도(FBIS)는 아동에 대한 가족간의 신념을 측정하기 위하여 총 15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각 문항의 내용은 아동들이 학교나 가정에서 접할 수 있는 상황들을 설정하

고 있다.

이 가족신념면접 척도로 어머니, 아버지, 아동 신념, 아동예측 어머니 신념, 아동예측 아버지 신념의 다섯 가지 신념을 일차적으로 조사하였고, 위의 다섯 가지 신념들에 기초하여 신념들간의 일치도 유형을 조합하였다. 이 신념 일치도의 산출근거는 15개 문항으로 구성된 가족신념면접척도 각 문항마다 가족들의 반응에 따라 신념의 바람직한 정도를 3단계로 평점하였는데(1점은 가장 바람직하지 않은 방향의 신념 점수, 3점은 가장 바람직한 방향의 신념 점수, 2점은 분명하지 않거나 확실하지 않은 신념 점수), Cashmore와 Goodnow(1985, p. 498)의 신념 일치도 평점방식에 따라 각 문항마다 3점 신념에 평점된 것끼리 짝을 지워 신념 일치도 점수를 산출하였다.

부모와 아동의 답변에 대한 분석이 정확하였는



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본 연구자가 답변을 분석하고 또 다른 보조자가 다시 한번 답변을 분석하였는 바 분석자간의 분석일치율은 97% 였다.

## 2) 아동의 자기 능력 지각 측정도구

Harter(1982)에 의해 고안된 자기능력지각 척도(The Perceived Competence Scale for Children)는 아동의 지각된 능력과 일반적인 자기 가치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목적인 자기보고식 척도로서 4가지 영역으로 구성되었다.

① 학업 성취를 강조한 학교에서의 인지적 능력(cognitive competence)의 지각: 학업성적이 좋고, 스마트 하며, 교실에서의 수행에 관해 좋게 느끼는 등.

② 또래와의 사회적 능력(social competence) 지각: 친구를 많이 쉽게 좋아할 수 있는 친구되기, 한반내에서 중요한 구성원이 되는 등.

③ 스포츠와 실외 놀이에 중점을 둔 운동에서의 신체적 능력(physical competence) 지각: 운동을 잘하며, 새로운 실외 놀이를 쉽게 배우고, 단 순히 다른 사람이 운동하는 것을 보는 것보다 자신이 직접하는 것을 더 좋아하는 등.

④ 일반적인 자아가치(general self-worth) 지각: 자신감이 있는 사람, 자신의 방식에 만족하는 사람, 행동하는 방법에 관해 좋은 느낌을 가지고 자신이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등.

이 척도의 실시절차 및 점수화 과정을 간략하게 정리하면 본 도구는 아동에게 질문을 제시하는데, 맨 처음, 아동은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유형의 아동을 결정해야 한다. 가장 좋아하는 유형의 아동은 오른쪽 혹은 왼쪽에 묘사되어 있다. 이 결정을 한 다음에, 아동은 묘사된 아동이 그에게 '조금 그런지' 혹은 '정말 많이 그런지'를 결정해야 한다. 각 항목은 1-4점까지 점수가 매겨져 있으며, 1점은 낮은 지각된 능력을, 4점은 높은 지

각된 능력을 의미한다.

본 검사의 내적 합치도 계수  $\alpha$ 는 .88이었으며, 하위영역별 내적합치도계수는 .72에서 .80으로 나타났다. 또한 검사총점과 각 문항과의 상관은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는 .42에서 .69로 나타나 대부분의 문항이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각 하위영역과 하위영역에 속한 문항과의 상관은 .49에서 .84로 나타나 모든 문항이 0.1%의 유의도 수준에서 문항반응의 안정성을 보였다.

## 3.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는 주어진 연구문제에 따라 수집된 자료를 SPSS/PC+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 처리하였는데, 연구문제를 검증하기 위하여 하위연구문제에 따라 이원변량분석, 적률상관계수등을 이용한 분석을 하였다.

## IV. 결 과

본 연구는 부모, 아동의 신념과 부모-아동간의 신념의 일치도가 자녀의 정의적 행동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검증해 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연구문제 순서에 따라 자료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1. 연구문제 1의 분석 결과

연구문제 1. 부모, 아동의 신념과 아동의 자기능력지각간에는 관계가 있는가를 밝히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하위 연구문제별로 그 결과를 제시하였다.

#### 1) 연구문제 1-1의 결과

<부모, 아동의 신념이 높고 낮음과 아동의 연

령에 따라 아동의 자기 능력지각의 하위변인들에서 차이가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하여 5가지 부, 모, 아동신념의 각각 평균을 중심으로 높고 낮음에 따라 분류한 높은/낮은 집단과 아동의 연령을 독립변인으로 한 이원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먼

저 아동의 연령과 부, 모, 아동 신념이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 그리고 자기능력지각 각 하위변인의 평균, 표준 편차를 제시해 보면 <표 2>와 같다.

<표 2> 아동의 연령과 부, 모, 아동신념의 높고 낮음에 따른 자기능력지각 하위변인

신념구분	하위변인	인지적 영역		사회적 영역		신체적 영역		전반적 자아가치									
		연령	8 세	11 세	8 세	11 세	8 세	11 세	8 세	11 세							
	통계치	M	SD	M	SD	M	SD	M	SD	M	SD						
어머니	높음	19.97	3.83	19.10	3.71	20.24	4.21	20.15	3.37	18.15	4.32	17.55	5.47	19.76	4.03	17.75	4.22
	낮음	18.26	4.84	18.17	3.35	19.23	3.86	19.00	4.58	18.46	4.64	16.63	3.96	19.60	4.60	17.67	4.42
아버지	높음	19.58	3.68	19.28	3.58	19.97	4.32	20.57	3.29	18.63	4.08	17.50	5.10	20.34	3.87	18.31	3.78
	낮음	18.47	5.23	17.82	3.42	19.40	3.69	19.29	4.48	17.90	4.92	16.64	4.55	18.83	4.72	16.82	3.89
아동자신	높음	19.78	4.03	19.67	3.98	20.00	4.27	21.59	2.96	18.58	4.03	19.56	4.95	20.31	4.32	19.18	3.34
	낮음	17.74	4.95	18.09	3.18	19.17	3.55	18.44	4.06	17.78	5.24	15.65	4.21	18.43	4.07	16.79	3.92
아동이 예측한 어머니	높음	19.44	4.26	19.70	3.36	20.31	4.21	20.59	3.50	18.93	4.41	18.49	4.50	20.87	3.89	18.92	3.12
	낮음	18.39	4.76	17.58	3.51	18.57	3.46	18.60	4.20	17.09	4.38	15.67	4.90	17.35	4.17	16.36	4.21
아동이 예측한 아버지	높음	19.29	4.02	19.23	3.58	19.76	4.51	20.63	2.89	18.73	4.52	18.33	4.44	20.59	4.31	18.47	3.53
	낮음	18.92	4.93	18.30	3.55	19.68	3.45	18.93	4.47	17.81	4.39	16.28	5.04	19.58	4.08	17.15	4.05
합 계		19.09	4.43	18.70	3.57	18.45	4.45	17.16	4.87	18.31	4.45	17.16	4.87	19.68	4.30	17.71	3.87

<표 2>에 의하면 신념의 높고 낮음에 따라, 또 아동의 연령에 따라 인지적 자기능력지각에는 차이가 없음을 알수있고, 사회적 능력지각과 신체적 지각능력 영역에서는 연령에 따라 차이가 거의 없지만 신념이 높고 낮음에는 극소의 차이를 보이는 한다. 그러나 전반적 자아가치 영역에서는 신념이 높고 낮음에 따라, 또 아동의 연령에 따라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런 현상이 실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하기 위하여 이원 변량분석을 실시한 결과 다음 <표 3>과 같다.

<표 3>에 의하면, 아동의 인지적 자기능력지각

에서 볼 때 연령의 주효과는 나타나지 않았고 어머니와 아버지 신념 그리고 아동이 예측한 아버지 신념의 주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즉 어머니와 아버지 그리고 아동이 예측한 아버지의 신념이 높고 낮음에 따른 아동의 인지적 자기능력지각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아동자신, 아동이 예측한 어머니 신념의 경우는 신념의 높고 낮음에 따라 인지적 자기능력지각은 5%유의도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아동의 연령과 부, 모, 아동 신념의 상호작용 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표 3> 아동의 연령과 부, 모, 아동 신념의 높고 낮음에 따른 인지적, 사회적, 신체적 자기능력지각 및 전반적 자아가치지각 변량분석 결과

신념일치도구분	하위변인	Source	인지적 능력	사회적 능력	신체적 능력	전반적 자아가치
	통계치		F	F	F	F
어머니	연령		.543	.053	2.161	7.861**
	신념		3.748	2.523	.147	.029
	연령 × 신념		.326	.010	.579	.003
	오차					
아버지	연령		.420	.003	2.200	8.607**
	신념		3.493	4.446*	.965	4.599*
	연령 × 신념		.065	1.592	.006	.000
	오차					
아동자신	연령		.024	.535	.371	3.773
	신념		6.580*	8.905**	9.213**	9.252**
	연령 × 신념		.110	2.890	3.806	.135
	오차					
아동이 예측한 어머니	연령		.064	.077	1.145	5.623*
	신념		5.519*	7.517**	8.837**	20.065***
	연령 × 신념		.598	.031	.327	.514
	오차					
아동이 예측한 아버지	연령		.263	.004	1.519	6.575*
	신념		.172	1.748	3.543	5.979*
	연령 × 신념		.891	1.431	.510	.256
	오차					

\*p<.05 \*\*p<.01 \*\*\*p<.001

사회적 자기능력지각에서는 연령의 주효과는 나타나지 않았고 어머니, 아동이 예측한 아버지 신념의 주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즉 어머니, 아동이 예측한 아버지 신념의 높고 낮음에 따른 아동의 사회적 자기능력지각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아버지, 아동 자신, 아동이 예측한 어머니 신념의 경우는 신념이 높고 낮음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부분적으로 차이를 보였다. 그리고 아동의 연령과 부, 모, 아

동 신념의 상호작용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신체적 자기능력지각에서는 연령의 주효과는 나타나지 않았고 어머니, 아버지, 아동이 예측한 아버지 신념의 주효과도 나타나지 않았다. 즉 어머니, 아버지 그리고 아동이 예측한 아버지 신념의 높고 낮음에 따른 아동의 신체적 자기능력지각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아동자신, 아동이 예측한 어머니 신념의 경우는 신념의 높고 낮음에 따라 신체적 자기능력지각은 1% 유의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부분적인 차이를 보였다. 그리고 아동의 연령과 부, 모, 아동 신념의 상호작용 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부, 모, 아동간 신념의 높고 낮음과 아동의 연령에 따른 전반적 자아가치 지각은 다른 하위변인과는 차이점을 보여 주었다. 즉 아동의 연령에 대한 아동자신만을 제외한 주효과가 어머니, 아버지, 아동이 예측한 어머니, 아동이 예측한 아버지 에 있어 연령에 따른 차이를 나타내 주었다. 그러나 어머니의 신념을 제외한 아버지, 아동자신, 아동이 예측한 어머니, 아동이 예측한 아버지 신념에서도 주효과가 나타났다. 아동의 연령과 부,

모, 아동 신념의 상호작용 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이상과 같이 아동 자신의 신념이 아동의 자기능력지각 하위변인 모두에서 차이를 보였다. 즉 아동 자신의 신념으로 인해서, 아동자신의 신념이 어떠한가에 따라 아동의 자기능력지각과는 차이를 보임이 밝혀졌다.

2) 연구문제 1-2의 결과

〈부, 모, 아동의 신념(어머니, 아버지, 아동, 아동 예측 어머니, 아동 예측 아버지)은 아동의 연령에 따라 아동의 자기능력의 하위변인과 관계가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하여 Pearson의 적률상관계수를 구한 결과 〈표 4〉와 같다

〈표 4〉 아동의 연령에 따른 부, 모, 아동 신념과 자기능력지각 하위 영역과의 상관계수 (N=138)

하위변인 연령	인지적 영역		사회적 영역		신체적 영역		전반적 자아가치	
	8세 (N=68)	11세 (N=70)	8세 (N=68)	11세 (N=70)	8세 (N=68)	11세 (N=70)	8세 (N=68)	11세 (N=70)
아버지	.26*	.03	.26**	.23*	-.00	.13	.09	.04
어머니	.28**	.26*	.21*	.35**	.11	.14	.26**	.12
아동	.37***	.17	.23*	.27*	.17	.29**	.34**	.22*
아동 예측 어머니	.07	.31**	.23*	.25*	.18	.23*	.40***	.22*
아동 예측 아버지	.09	.22	.07	.39***	.20	.25**	.35**	.14

\*p<.05 \*\*p<.01 \*\*\*p<.001

〈표 4〉에 의하면, 아동의 연령이 어릴수록 자기능력지각 하위변인중 사회적 영역과 전반적 자아가치 영역이 다른 두 하위영역보다 부, 모, 아동신념과 다소 더 높은 정적 상관을 나타낸 반면, 사회적 영역에서는 연령에 관계없이 부, 모, 아동신념과 높은 상관을 나타내고 있다. 인지적인 능력지각에서는 어린 아동의 어머니, 아버지신념, 아동자신 신념과 높은 정적 상관을 나타냈으며, 신체적 영역에서는 나이 많은 아동의 아동자신, 아동이 예측한 어머니, 아동이 예측한 아버지 신

념과 높은 상관을 나타내고 있다.

2. 연구문제 2의 분석결과

연구문제 2는 부모-아동간의 신념일치도와 아동의 자기능력지각에는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였다. 아래에서 이와 관련된 분석결과를 제시하였다.

1) 연구문제 2-1의 결과

연구문제 2-1. <부모-아동간의 신념 일치도가 높고 낮음은 아동의 연령에 따라 아동의 자기능력 지각의 하위변인들에서 차이가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하여 8가지 부모-아동신념 일치도가 각각 평균을 중심으로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의 아동의 연령을 독립변인으로 하고, 아동의 자기능

력지각의 하위변인을 종속변인으로 한 이원변량 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부모-아동간 신념 일치도가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 그리고 아동의 자기능력지각의 하위변인들의 평균, 표준편차를 제시하면 <표 5>와 같다.

<표 5> 부모-아동간 신념 일치도의 높고 낮음과 아동의 연령에 따른 자기능력지각 하위변인의 비교

신념구분	하위변인	인지적 영역				사회적 영역				신체적 영역				전반적 자아가치				
		연령	8 세		11 세		8 세		11 세		8 세		11 세		8 세		11 세	
			M	SD	M	SD	M	SD	M	SD	M	SD	M	SD	M	SD	M	SD
어머니-아버지	높음	19.67	3.71	19.74	3.76	20.24	4.05	21.23	2.52	18.58	4.23	18.31	5.36	19.94	3.68	18.17	4.22	
	낮음	18.54	5.01	17.66	3.08	19.23	4.00	18.09	4.49	18.06	4.70	16.00	4.08	19.43	4.85	17.06	3.48	
어머니-아동	높음	20.38	3.50	19.30	3.95	20.51	4.09	20.97	2.77	18.28	3.78	18.06	5.34	20.86	3.92	19.24	4.38	
	낮음	17.55	5.16	18.16	3.15	18.77	3.90	18.49	4.48	17.81	5.16	16.35	4.32	18.26	4.36	17.24	3.34	
아버지-아동	높음	20.15	3.50	18.97	3.76	20.13	3.72	20.27	3.38	18.28	4.05	17.88	5.07	19.79	3.84	18.12	4.31	
	낮음	17.66	5.16	18.46	3.42	19.17	4.42	19.11	4.36	18.34	5.02	16.51	4.65	19.52	4.92	17.35	3.44	
어머니-예측어머니	높음	20.46	4.03	19.33	3.52	21.31	3.72	20.93	2.68	19.35	3.73	18.23	4.83	21.35	3.46	18.27	3.56	
	낮음	18.24	4.50	18.23	3.58	18.74	3.95	18.70	4.47	17.67	4.78	16.35	4.80	18.64	4.48	17.71	4.08	
아버지-예측아버지	높음	19.89	3.31	19.07	3.77	20.32	3.68	20.74	2.88	18.76	4.35	18.41	4.89	20.27	3.63	18.09	4.05	
	낮음	18.13	5.38	18.00	3.11	19.00	4.37	17.58	4.86	17.77	4.59	14.75	3.89	18.97	4.96	17.00	3.45	
아동-예측어머니	높음	19.90	4.57	10.16	3.84	20.31	4.35	20.13	3.82	18.86	4.57	18.16	5.05	20.22	4.60	18.53	3.29	
	낮음	17.00	3.32	18.32	3.32	18.21	2.62	19.26	4.06	16.89	3.89	16.32	4.61	18.26	3.07	17.03	4.21	
아동-예측아버지	높음	19.77	4.10	19.55	4.15	20.10	4.20	20.21	3.77	18.73	4.35	18.28	5.21	20.63	4.28	19.07	3.59	
	낮음	17.45	4.86	18.10	3.01	18.80	3.53	19.27	4.06	17.30	4.66	17.37	4.51	17.40	3.50	16.76	3.81	
예측어머니-예측아버지	높음	19.79	4.01	19.58	3.85	20.31	4.34	20.77	3.12	18.52	4.55	19.46	3.84	21.38	3.78	18.77	3.28	
	낮음	18.14	4.85	18.00	3.21	18.93	3.50	18.77	4.33	16.08	4.90	16.76	4.81	17.38	3.91	16.87	4.12	
합 계		19.09	4.43	18.70	3.57	18.45	4.45	17.16	4.87	18.31	4.45	17.16	4.87	19.68	4.30	17.71	3.87	

<표 5>에 의하면 부모-아동간 신념일치도의 높고 낮음에 따라 아동의 자기능력지각 각 하위변인에 있어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부모-아동관계에서 발생하는 신념일치도가 높은 아동이 낮은 아동보다 자기능력지각 각 하위변인

에 있어서 높은 점수를 보이는 경향이 있으며, 전반적 자아가치 지각에 있어서는 연령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를 실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하기 위하여 이원변량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6>에 제시되어 있다.

〈표 6〉 아동의 연령과 부모-아동간 신념일치도의 높고 낮음에 따른 인지적, 사회적, 신체적 자기능력지각 및 전반적 자아가치지각 변량분석 결과

신념일치도구분	하위변인 통계치	인지적 능력	사회적 능력	신체적 능력	전반적 자아가치
	Source	F	F	F	F
(1) 어머니- 아버지	연령	.374	.021	2.218	7.985*
	신념일치도	5.727*	10.271**	3.297	1.051
	연령 × 일치도	.510	2.653	1.300	.083
	오차				
(2) 어머니- 아동	연령	.135	.019	1.767	7.214**
	신념일치도	8.773**	10.282**	2.776	6.883**
	연령 × 일치도	1.610	.317	.245	1.388
	오차				
(3) 아버지- 아동	연령	.123	.004	1.832	7.370**
	신념일치도	4.800*	2.427	.696	.567
	연령 × 일치도	2.163	.023	.794	.122
	오차				
(4) 어머니- 예측어머니	연령	.475	.071	2.458	9.028**
	신념일치도	5.769*	12.952***	4.959*	6.793**
	연령 × 일치도	.660	.064	.016	1.567
	오차				
(5) 아버지- 예측아버지	연령	.648	.226	3.310	9.028**
	신념일치도	4.186*	10.799***	8.294**	2.824
	연령 × 일치도	.250	1.853	2.868	.023
	오차				
(6) 아동- 예측어머니	연령	.011	.193	.641	4.506*
	신념일치도	6.148*	3.934*	5.236*	5.560*
	연령 × 일치도	2.101	.747	.005	.098
	오차				
(7) 아동- 예측아버지	연령	.046	.133	.637	2.829
	신념일치도	6.832**	2.393	4.152*	15.241***
	연령 × 일치도	.371	.065	.083	.423
	오차				
(8) 예측아버지- 예측어머니	연령	.067	.055	1.104	5.832*
	신념일치도	5.650*	6.341*	10.941***	20.140***
	연령 × 일치도	.003	.217		2.586
	오차				
(9) 기본적 신념일치	연령	.079	.083	1.577	7.046**
	신념일치도	6.309*	10.969***	2.968	1.599
	연령 × 일치도	.000	1.550	2.116	.402
	오차				
(10) 예측의 정확성	연령	.373	.020	2.385	8.390**
	신념일치도	6.633**	11.291***	11.277***	6.111*
	연령 × 일치도	.014	.202	.591	.200
	오차				
(11) 유사성의 추측	연령	.037	.125	.570	2.822
	신념일치도	6.507*	2.292	4.880*	15.761***
	연령 × 일치도	.791	.164	.098	1.079
	오차				

\*p<.05 \*\*p<.01 \*\*\*p<.001

부모-아동간 신념일치도의 높고 낮음과 아동의 연령에 따른 인지적 자기능력지각에 있어서는 아동의 연령에 대한 주효과는 없었으나 부모-아동의 신념의 일치도에서 주효과가 나타나 유의한 차이를 보여 주었다. 부모-아동의 신념일치도가 높은 아동이 낮은 아동보다 아동의 인지적 자기능력지각에 있어서 긍정적 경향을 나타내었다. 즉 신념의 일치도 pattern이 어떠한지에 따라 아동의 인지적 자기능력 지각에는 차이를 보여 주었다. 그러나 아동의 연령과 부모-아동간 신념 일치도의 상호작용 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부모-아동간 신념일치도의 높고 낮음과 아동의 연령에 따른 사회적 자기능력지각에 있어서는 아동의 연령에 대한 주효과는 없었다. 그러나 아버지-아동의 신념 일치도와 아동-아동이 예측한 아버지 신념 일치도를 제외한 모든 신념 일치도에 있어서 주효과가 있었으며, 유사성 추측유형 신념 일치도를 제외한 기본적 신념일치 유형과 예측의 정확성 유형에서는 주효과가 있었다. 그러나 아동의 부모-아동간 신념 일치도의 상호작용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부모-아동간 신념 일치도의 높고 낮음과 아동의 연령에 따른 신체적 자기능력지각에 있어서 아동의 연령에 대한 주효과는 없었다. 그러나 어머니-아버지, 아버지-아동의 신념 일치도를 제외한 모든 신념 일치도에 있어서 주효과가 있었다. 즉 기본적 신념 일치 유형을 제외한 예측의 정확성 유형과 유사성 추측 유형신념의 일치도가 높은 아동이 낮은 아동보다 신체적 자기능력을 긍정적으로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아동의 연령과 부모-아동간 신념일치도의 상호작용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부모-아동간 신념 일치도의 높고 낮음과 아동의 연령에 따른 전반적 자아가치 지각에 있어서 아동의 연령에 대한 주효과는 아동-예측 아버지

를 제외한 즉 유사성 추측 유형의 신념일치도 유형을 제외한 두 신념일치도 유형에서는 주효과가 있었다. 그러나 어머니-아버지, 어머니-예측 어머니의 신념일치도를 제외한 모든 신념 일치도에 있어서 주효과가 있었고 신념일치도 유형에서는 예측의 정확성 유형만 주효과가 있었다. 즉 부모-아동간 신념 일치도중 예측의 정확성이 높은 아동이 낮은 아동보다 전반적 자아가치를 긍정적으로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아동의 연령과 부모-아동간 신념 일치도의 상호작용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이상과 같은 이원변량분석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아동의 자기능력지각에는 부모-아동간 신념의 일치도가 중요한 변인이 되어 인지적 능력지각, 사회적 능력지각, 신체적 능력지각, 전반적 자아가치지각에 차이를 보임을 알 수 있었다. 즉 부모-아동간 신념의 일치도가 높을 수록 아동의 자기능력은 긍정적으로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2) 연구문제 2-2의 결과

연구문제 2-1. 〈부모-아동간의 신념일치도 유형은 아동의 연령에 따라 아동의 자기능력의하위 변인과 관계가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하여 8가지 부모-아동간 신념일치도를 아동의 연령에 따라 아동의 자기능력지각 하위변인과의 적률상관계수를 산출한 결과는 〈표 7〉과 같다.

〈표 7〉에 의하면, 먼저 인지적 능력지각에서 연령이 어릴수록 기본적 신념일치도와 예측의 정확성 유형이 더 높은 정적상관을 나타내고 있다. 사회적 영역 지각에서는 연령에 관계없이 부모-아동간 신념일치도와 높은 정적 상관을 나타내지만 연령이 더 높을 수록 높은 상관을 나타내고 있다. 신체적 능력지각에서는 연령이 높을수록 더 높은 정적 상관을 나타냈으며, 전반적 자아가치 영역에서는 연령이 어릴수록 예측의 정확성과 유

사성 추측 유형이 더 높은 정적상관을 나타내고 있다.

〈표 7〉 아동의 연령에 따른 부모-아동간 신념의 일치도와 아동의 자기능력지각 하위변인과의 상관계수

신념구분	하위변인 연령	인지적 영역		사회적 영역		신체적 영역		전반적 자아가치	
		8세 (N=68)	11세 (N=70)	8세 (N=68)	11세 (N=70)	8세 (N=68)	11세 (N=70)	8세 (N=68)	11세 (N=70)
(1) 어머니-아버지		.23*	.16	.20	.36***	.11	.17	.13	.07
(2) 어머니-아동		.39***	.08	.29**	.31**	.09	.29**	.17	.25*
(3) 아버지-아동		.36***	.13	.32**	.37***	.17	.20**	.27	.20
(4) 어머니-예측어머니		.34**	.16	.24*	.28**	.31*	.28**	.48***	.26*
(5) 아버지-예측아버지		.27*	.18	.26*	.27*	.24*	.28**	.38***	.26*
(6) 아동-예측어머니		.29*	.13	.24*	.34**	.14	.32**	.23*	.19
(7) 아동-예측아버지		.32**	.25*	.32**	.38**	.14	.20*	.31**	.17
(8) 예측아버지-예측어머니		.11	.35**	.22*	.40***	.30**	.33**	.45***	.26*

\*p<.05 \*\*p<.01 \*\*\*p.001

### V. 결론 및 논의

본 연구의 목적은 부, 모, 아동의 신념과 신념의 일치도와 아동의 정의적 행동인 자기능력지각의 하위변인들인 인지적 능력, 사회적 능력, 신체적 능력, 전반적 자아가치지각과의 관계를 규명하기 위한 것이었다.

본 연구에서 얻어진 연구결과를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아동연령과 신념점수의 높고 낮음에 따른 아동의 인지적 능력지각에 있어서는 아동자신 신념과 아동이 예측한 어머니 신념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고 사회적 능력지각에서는 아동자신신념 어머니, 아동이 예측한 어머니 신념에서, 신체적 능력지각에서도 아동자신, 아동이 예측한 어머니 신념이 높고 낮음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 즉 아동자신의 신념과 아동이 예측하는 어머니의 긍정적 신념이 높음에 따라 아동이 자기능력을 지각하는 수준도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아버지의 신념보다도 아동자신과 어머니의

신념이 어떠한냐에 따라 더 밀접한 관계를 보여줌으로써 아버지보다도 어머니와의 관계가 더 중요한 것으로 증명되고 있다.

전반적 자아가치지각에서는 3가지 하위변인과는 다른 차이점이 있었는데, 아동 자신의 신념만을 제외하고는 아동 연령에 따른 차이를 보였다. 8세 아동이 11세 아동보다 즉 아동의 연령이 어릴 수록 전반적인 자아가치를 유의하게 높이 지각하는 반면, 연령이 올라 갈수록 자아가치를 낮게 지각하는 의미있는 결과를 보여주어 우리의 관심을 집중시킨다. 이는 Stipek와 Iver(1989)이 아동의 자기능력지각 평가에 관한 발달적 변화의 연구 수행을 통해, 아동은 자기능력을 평가하는 수준이 어릴수록 높게 평가하는 경향이 있고 나이가 증가할 수록 특히 6-7학년에서부터 현저하게 낮게 평가하는 경향이 있다고 보고한 연구 결과와 똑같은 동일한 결과이었다. 그리고 전반적 자아가치지각은 신념에 있어서도 차이를 크게 보여주어 신념점수가 높을 수록 즉 부모의 신



념이나 아동 신념이 긍정적으로 높을 수록 아동은 자신에 대한 전반적 자아가치를 유의하게 높게 지각하였다.

둘째, 부모-아동관계에서의 신념일치도가 높은 아동이 낮은 아동보다 자기능력지각 각 하위변인 모두에 있어 높게 지각하는 것으로 의미있는 결과를 보여 주었다. 특히 인지적 능력지각에 있어서는 이 결과가 두드러지게 나타나 부모-아동간 신념의 일치도가 높을 수록 아동이 자신의 인지적 능력지각을 높게 하는 긍정적 영향을 나타내어 하위변인들 중에서도 인지적능력의 지각은 확연한 차이를 보여 주었다. 물론 사회적 능력지각이나 전반적 자아가치지각에 있어서는 대부분의 부모-아동 신념 일치도 유형에서 뚜렷한 차이를 보여 주어 신념일치도가 높을 수록 아동이 자신의 능력을 높게 지각하였다. 이는 이종승과 오성심(1982)의 연구결과와도 일치하며, 장도현(1984)의 연구결과와도 유사하였다. 이로써 아동의 정의적 행동인 자기능력지각과 부모-아동간 신념일치도의 밀접하고 유의미한 관계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상에서 종합해 볼때, 부, 모, 아동신념과 부모-아동간 신념 일치도는 아동의 자기능력지각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상관변인으로서 가치가 입증되었으며, 부모의 신념은 물론 부모-아동간 상호작용하는 신념의 일치도는 아동발달에 있어 특히 중요한 요인일 수 있음을 강조할 수 있겠다.

### References

김기정(1984). 학업성취도와 지각된 양육태도가 자아개념에 미치는 영향. 중앙대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김은아(1981). 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상과 학업성취도와의 관계. 조선대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김재은(1974). 한국가족의 심리 서울:이화여자 대학교 출판부.  
 박희라(1989). 아동의 자아개념과 주요타인의 인정. 한양대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석정남 (1988). 자녀에 대한 가족간 신념의 일치도에 관한 연구. 숙명여대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송인섭(1989). 인간심리와 자아개념. 서울:양서원  
 이종승, 오성심(1982). 부모의 양육방식에 대한 아동의 지각과 정의적 특성의 관계. 한국 행동과학 Research Bulletin, RB-11-1.  
 장도현(1984). 부모의 양육행동이 자녀의 자존감에 미치는 영향. 경북대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전경숙(1989). 아동발달과의 관계에서 본 부모의 신념체계에 관한 고찰. 동아대대학원 논문집, 제14집, 55-68.  
 전경숙(1992). 부모-아동간 신념의 일치도와 아동의 학업성취도 및 자기능력지각과의 관계. 숙명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Alessandri, S. M., & Wozniak, R. M. (1987a). The child's awareness of parental beliefs concerning the child:A developmental study. *Child Development, 58*, 316-323.  
 Alessandri, S. M., & Wozniak, R. H.(1987b, April). The child's awareness of adult beliefs concerning the child: The effects of gender and subculture, Paper presented at the biennial meeting of the Society for Research in Child Development, Baltimore.  
 Alessandri, S, M., & Wozniak, R. H.

- (1987c). Depressed children's awareness of adult beliefs. Unpublished Manuscript.
- Alessandri, S. M., & Wozniak, R. H.(1987d, August). The child's awareness of parental beliefs concerning the child: A follow-up study. Paper presented at the annual meeting of the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New York.
- Brookover, W. B. , Erickson, E. L., & Joiner, L. M.(1967). *Self-concept of ability and school achievement* III (Final Report of Cooperative Research Project No. 1831). Michigan: Michigan State University.
- Deitz, G. E.(1969). A comparison of delinquents with nondelinquents on self-concept, and parental identification. *Journal of Genetic Psychology, 115*, 285-295.
- Erikson, E. N.(1963). *Childhood and society*. N.Y.: W.W.Norton & Company, Inc.
- Goodnow, J. J.(1988). Parents' ideas, actions, and feelings: Models and methods from developmental and social psychology. *Child Development 59*, 286-320.
- Graybill, D.(1978). Relationship of maternal child-rearing behaviors to children's self-esteem. *Journal of Psychology, 100*, 45-47.
- Harter, S.(1982). The Perceived Competence Scale for Children. *Child Development 53*, 87-97.
- Hunt, J. M., & Paraskevopoulos, J.(1980). Children's psychological development as a function of the inaccuracy of their mothers' knowledge of their abilities. *Journal of Genetic Psychology, 136*, 285-298.
- Kohn, M. L.(1969). *Class and conformity:A study in values*. Homewood: The Dorsey Press.
- McGillicuddy-De Lisi, A. V.(1985). The relationship between parental beliefs and children's cognitive level. In I. E. Sigel(Ed.), *Parental belief systems*(pp. 7-24). Hillsdale, NJ:Erlbaum.
- Miller, S. A.(1986). Parents' beliefs about their children's cognitive abilities. *Developmental Psychology, 22*, 276-284.
- Miller, S. A., Manhal, M., & Mee, L. L. (1991). Parental beliefs, parental accuracy, and children's cognitive performance: A search for casual relations. *Developmental Psychology, 27*, 267-276.
- Nicholls, J. G.(1978). The development of the concepts of effort and ability, perception of academic attainment, and the understanding that difficult tasks require more ability. *Child Development, 49*, 800-814.
- Parsons, J. E., Adler, T. F., & Kaczala, C. M.(1982). Socialization of achievement attitudes and beliefs:Parental influences. *Child Development, 53*, 310-321.
- Quattrone, G. A.(1985). On the congruity between internal states and action,

- Psychological Bulletin*, 98, 3-40.
- Rosenberg, M. J.(1963). Parental interest and children's self-conceptions. *Sociometry*, 26, 20-31.
- Sigel, I. E.(1985). A conceptual analysis of beliefs. In I. E. Sigel(Ed.), *Parental Belief Systems*(pp.345-371). Hillsdale, N.J.: Erlbaum.
- Stipek, D. J., & Iver. D. M.(1989). Developmental change in children's assessment of intellectual competence. *Child Development*, 60, 521-538
- Sigel, I. E., McGillicuddy-De Lisi, A. V., & Goodnow, J. J.(1992). *Parental Belief Systems(2nd)*. Hillsdale, N.J.: Erlbaum.
- Taub, M.(1974). Self concepts of parent and child. *Home Economics Research Journal*, 49, 136-145.
- Tower, R. B.(1981). Parent's self-concepts and preschool children's behavior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9, 710-718.